

1. 발음 및 표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‘맑다’와 ‘맑아’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?
↳ ‘맑다’는 [말따]로, ‘맑아’는 [말가]로 발음합니다.
- ② ‘낱다’와 ‘낱아’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요?
↳ ‘낱다’는 [나 : 타]로, ‘낱아’는 [나아]로 발음합니다.
- ③ ‘무늬’를 [무늬]로 발음하면 안 되나요?
↳ 자음을 첫소리로 갖는 ‘-니’는 []로만 발음해야 하므로 [무니]로 발음합니다.
- ④ ‘어떡해’, ‘어떻게’ 어떤 것이 맞는 표기인가요?
↳ ‘어떡해’는 ‘어떻게 해’가 줄어든 말이므로 ‘어떡해’가 맞는 표기입니다.
- ⑤ ‘일어날게’와 ‘일어날께’ 중 옳은 표현은 무엇인가요?
↳ ‘-(으)리게’는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‘일어날게’가 옳은 표현입니다.

2.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.

• 표준 발음법: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, 국어의 ()와/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3. 다음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남학생: 신이시여! 제게 빛을 내려 주소서!
여학생: 빛? 나 빛 있는데 빌려줄까?
남학생: 갑자기 웬 빛?

- ① 두 학생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고 있다.
- ② 남학생은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게 발음했다.
- ③ 여학생은 남학생이 말하는 ‘빛’을 ‘빋’으로 오해하였다.
- ④ 남학생은 ‘빛을’을 [비출]로 발음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.
- ⑤ 여학생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‘빋’을 [빈]으로 발음했을 것이다.

4.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말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달이 밝으니[발그니] 온 세상이 환하다.
- ② 하루아침에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[업따].
- ③ 그녀는 마음이 상했는지 좋아하는 시를 읊지[을찌] 않았다.
- ④ 시선을 창밖으로 옮기니[옮기니] 새로운 풍경이 눈을 사로잡았다.
- ⑤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구를 두루 넓게[널께] 사귀는 편이었다.

5.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물건을 훔칠 만한 사람이 없다[업따].
- ② 주변 지역을 샅샅이 훑다[훑따] 보니 도망간 도둑을 찾아낼 수 있었다.
- ③ 그녀는 집에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넋이[넉씨] 빠져 있었다.
- ④ 성공하고 말겠다는 외곬[외골]의 마음이 오늘 날의 그를 만들어 내었다.
- ⑤ 인구의 열의 여덟[여덟]은 아직 숲속에서 소박한 전통적 생활을 하고 있다.

6.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?

휴장난을 하던 꼬마는 사랑을 읊조릴 줄 아는, 젊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랐어요.

	휴장난	읊조릴	젊고
①	[혹]	[읊조릴]	[점꼬]
②	[홀]	[읍조릴]	[젊고]
③	[혹]	[읍조릴]	[점꼬]
④	[홀]	[읍조릴]	[젊고]
⑤	[흙]	[읍조릴]	[점꼬]

7. <보기>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‘민주주의의’를 발음할 때,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제5항 ‘-니’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. 다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]로, 조사 ‘의’는 [네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- ① [민주주의에] ② [민주주의의]
- ③ [민주주이에] ④ [민주주이으]
- ⑤ [민주주이의]

※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이다. 말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, 발음이 사람마다 달라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정한 것이다.

표준 발음법은 ㉠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,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원칙은 ‘교양 있는 서울 사람이 쓰는 말’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, 서울말의 실제 발음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에 역사적으로 사용해 온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에 따라 정한다는 뜻이다.

8. <보기>의 ‘표준 발음법 제5항’을 근거로 ㉠을 바르게 소리 낸 것은?

<보기>

- ‘-’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.
-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-’는 []로 발음한다.
-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]로, 조사 ‘의’는 [케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- ① 무늬[무니] ② 의사[이사]
 ③ 씌어[쓰어] ④ 의리[으리]
 ⑤ 널리리[널니리]

9. 다음 중 이중 모음 ‘-’의 발음이 두 가지로 나는 단어가 아닌 것은?

- ① 희망 ② 주의 ③ 협의
 ④ 우리의 ⑤ 무늬의

10. <보기>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?

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]로, 조사 ‘의’는 [케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- ① 희망[히망] ② 씌어[씨어]
 ③ 널리리[널리리] ④ 우리의[우리애]
 ⑤ 띄어쓰기[떠어쓰기]

11. 표준 발음법을 이해하고, 다음 설명이 맞으면 ○ 표, 틀리면 ×표를 하시오.

‘우리의 자랑’은 [우리애 자랑], [우리의 자랑]으로 읽을 수 있다. (○, ×)